

출장보고서

I. 출장 개요

1. 출장건명: 중부내륙중심권 정부사업 공동 발굴
2. 출장목적: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농촌지역 활성화 사례 조사
3. 출장지역: 일본 시코쿠(四國) 일원
4. 출장기간: 2010년 2월 1일~ 2월 5일(4박 5일)
5. 출 장 자

부서명(기관명)	직 급	성 명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박시현
	초청연구원	최경은

6. 출장일정

일 정	주요 활동내역
2월1일	출국(인천공항 출발→오카야마공항 도착)
2월2일	- 농림수산성 중국사국농정국(中國四國農政局) - 농산어촌교류사업 - 농산어촌활력재생 지원사업 - 기업 참여 활동 - 지역 이동(오카야마(岡山)→에히메현(愛媛縣))
2월3일	- 구마농업공원(에히메현(愛媛縣) 구마코겐정(久万高原町)) - 도시민농업후계자연수사업 - 도농교류사업 - 타케노모리가든농장(에히메현(愛媛縣) 구마코겐정(久万高原町)) - 소호 형태의 농장 운영 - 정보발신 서비스 제공 컨설팅 활동 - 지역 이동(에히메현(愛媛縣)→고치현(高知県))
2월4일	- 농가민숙(고치현(高知県) 유스하라정(梶原町)) - 농촌관광 및 농가민숙 - 우마지무라농협(고치현(高知県) 우마지무라(馬路村)) - 가공공장 견학 - 통신판매망을 활용한 가공제품 브랜드화 전략
2월5일	- 이노정 농촌관광사무국(고치현(高知県) 이노정(いの町)) - 그린투어리즘 연구회 활동 - 지역재생계획 수립 활동 - 입국(마쓰야마공항 출발→인천공항 도착)

7. 주요 방문기관 및 면담자

소속기관	직 급	성 명	연 락 처
농림수산성 중국사국농정국	기획관	青山直樹	086-224-4511
	제2계장	中川律子	086-224-4511 ritsuko_nakagawa@chushi.maff.go.jp
	부장	高橋禎一	086-224-4511
	농촌진흥과장	三善 浩二	086-224-4511 kouji_miyoshi@chushi.maff.go.jp
	총무파트	笹倉善高	086-224-9407 yoshitaka_sasakura@chushi.maff.go.jp
	기술파트	中脇理文	086-224-2483 masafumi_nakawaki@chushi.maff.go. jp
(사)구마고젠농업 공사	대표	竹前誠人	0892-41-0040 kakemae-makoto@kumakogen.jp
구마고젠정 타케노모리가든	재배관리 책임자	竹森洋輔	0892-41-0005 yousuke@takemori-garden.com
고치현 유스하라정 농가민숙	대표	上田和子	0889-65-0418 tkm@ma.pikara.ne.jp
고치현 우마지무라농협	조합장	東谷望史	088-867-2314
이노정	오북종합지소 지역진흥과광	氏原憲明	088-867-2314 k-ujihara@town.ino.lg.jp
	그린투어리즘 연구회장	和田光正	088-867-2988

II. 주요 출장 결과

1. 농림수산성 중국사국농정국(中國四國農政局)의 농촌활성화 정책

□ 개요

- 중국사국농정국은 일본 농림수산성의 직할 기관으로서 일본의 긴키지방과 규슈지방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중국지방과 사국지방을 관할
 - 오카야마, 히로시마, 돗토리, 야마구치(이상 중국지방), 가가와, 에히메, 고치, 도쿠시마(이상 사국지방)의 8개 현을 관할
- 중국사국지역은 산지가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등 타지역에 비해 농업조건이 열악
 - 1경영체당 경지면적(0.6ha)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음
 - 65세 이상 농업종사자수의 비율도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편임. 특히 중국지역은 79.0%
 - 경작포기지의 경우에도 일본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편으로 중국지역은 평균 17.2%, 사국지역은 16.9%에 달함
- 하지만 다양하면서 높은 수준의 농업생산이 이루어짐
 - 중국지역에는 축산이, 사국지역에는 야채, 과수 등의 원예작물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농업생산액은 일본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음
 - 최근에는 가공, 판매 등으로 농업생산관련활동을 넓히고 있는 농가수가 증가하고 있음. 예로서 도시의 가게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는 농가수의 비율이 중국지역은 16.7%, 사국지역은 17.9%로 일본 평균 16.6%를 웃돌고 있음

□ 중국사국의 지역활성화 및 농산어촌 교류사업

- 중국사국지역의 농산어촌 교류 사업은 농림수산성의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형태로 수행하는 것으로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이루어짐
 - 농산어촌지역의 정주 및 도시와 농산어촌 2지역 거주, 농촌지역의 활력을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
 - 중앙정부의 총무성, 문부과학성과 연계하여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 1주일 정도의 숙박체험이 가능한 모델지역을 조성하는 사업(어린이 농산어촌체험 프로젝트)을 추진
 - 농림어가민숙 등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농외수입을 증대시키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추진
- 어린이 농산어촌교류프로젝트는 관내에 12개 지구에서 행해지고 있음.
 - 지역의 시정촌 사무실이 창구가 되어 도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을 초대하여 약 4박 5일 정도의 체험프로그램을 진행
 - 숙박은 농가민박, 공적숙박시설, 민간인이 경영하는 일반 숙박시설 등을 활용
 - 프로그램은 옥외와 옥내로 구분. 옥외프로그램은 지역별로 다양한 편인데 농사체험, 산림가꾸기 체험, 자연체험 등이며 옥내체험은 된장, 곤약 구 등 전통 음식만들기, 화지 등의 특산품 만들기 등을 수행
- 농촌지역의 활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농산어촌활력재생지원사업을 수행
 - 정주 및 장기체재 촉진, 신규주민을 활용한 집락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
 - 신규주민 등에 의한 지역문화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체제
 - 기업 등과 연계한 SOHO의 농산어촌 입지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하고 있으나 중국사국이 도시로 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입지가 활발하지는 않은 편
 - 사업주체로서 NPO 법인을 구성
 - 농촌자원을 활용한 이업종연계사업의 추진
 - 농산어촌활력재생지원사업은 농정국에서 직접 11개 사업을 추진하여 관리(한국은 지자체가 직접 추진)
- 그린투어리즘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1994년 「농산어촌체재형여가활동을위한기반정비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림어업체험민숙의 등록을 제도화하였으나 2004년에 농산어촌여가법을 개정하여 농림어업자 또는 그들이 조직하는 단체이외에도 농림어업체험민숙을 경영할 수 있도록 확대. 이러한 조치에 의해 중국사국 관내에도 농림어업체험민숙을 하는 가구가 증대

- 지역활성화에 영향을 미친 농림어가민숙을 일본 전국에서 100개를 선정하였는데 중국사국관내에는 6개의 민숙이 선정
- 농산어촌에서 지속적으로 전승되어야 할 향토요리 100선에 중국사국관 내에서 16개의 요리가 선정
- 한편 일본에는 2003년부터 기업의 농업경영이 개시되었으며 2005년 9월부터 일반기업 법인도 농지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농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됨. 이러한 제도 변화에 따라 중국사국지역에서도 기업의 농업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짐

<표> 농업생산법인 외 법인의 농업 참여 법인수(2009년)

구 분	법인수	건설업	식품회사	기타
일본 전국	414	148	79	178
중국사국	105	46	21	38

- 2009년 현재 105개 업체가 참여
- 일본 건설업의 쇠퇴로 도산위기에 직면한 건설회사 등의 참여가 증가
- 법인 형태로는 주식회사가 57% 특례유한회사 24%, NPO 등의 20%
- 영농유형별로는 야채가 가장 많고(161%), 다음으로 복합(19%), 미맥(17%), 과수(16%) 순임
- 경작포기지의 활용, 중산간직불제도등과 연계하여 농업생산을 시작하는 기업이 많음
- 중국사국관내에는 블루베리, 유기농, 와사비 등 다양한 품목 생산에 기업 들이 참여하고 있음

2. 구마농업공원

□ 구마고젠정의 개요

- 에히메현의 현청소재인인 마스야마시에서 산간부로 진입하는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에히메현(愛媛縣) 구마코젠정(久万高原町) 소재
- 구마정은 표고 400-800미터의 고원지역으로 농업경영에 비교적 매력적인 지역임

- 구마코겐정은 시코쿠 관내에 있는 88개 절을 순서대로 순례하는 코스가 통과하는 지역으로 예부터 순례자들에게 무료 숙식을 제공하는 전통이 있는 지역으로 이러한 전통이 농촌관광으로 이어짐
 - 민숙, 국민숙사, 일반숙소들이 많음. 절 순례자들은 관광버스로 방문하며 주민들은 이들을 대상으로 농산물을 판매
- 구마고겐정은 4개 정촌이 합병하여 비교적 큰 자치단체로 10,435명 정도 거주

□ 구마농업공원의 개요

- 구마농업공원은 기초자치단체인 구마정이 설립한 것으로 설립목적은 ① 농업 후계자 육성, ② 농촌자원을 활용한 지역진흥(그린투어리즘)임
- 구마농업공원이 가지고 있는 시설로는 농업연수센터, 교류시설, 휴게실이 딸린 시민농원 등이 있음
 - 농업연수센터는 야채 화훼시험온실 1동, 토마토 양액재배실습온실 1동, 딸기 양액재배실습온실 1동, 육묘온실 1동, 노지화훼시험포 등이 있음
 - 교류시설로는 사무실과 후계자 양성 거점시설로 활용하는 지역자원종합 관리시설과 교류광장 등이 있음
 - 휴게시설이 딸린 시민농원은 통나무집이 딸린 주말농원으로서 면적에 따라 3가지 형태가 있음
- 구마농업공원을 운영하는 주체로 2000년에 구마고겐농업공사를 설립
 - 공사가 지향하는 사업은 농지보유합리화사업, 농작업의 수위탁업무, 신규취농자 및 농업생산법인 육성사업, 신규작물 및 신기술의 개발실증사업, 농업용 기계·시설 대부사업, 지역특산물의 개발 및 판매촉진사업,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촌기업의 개발사업 등임
 - 구마고겐정 100,000,000엔, JA 마스야마시 10,000,000엔, 수탁자협의회 1000,000엔에 총계 110,100,000엔의 출연금으로 시작
 - 출연금중 10,000,000엔은 기본재산이고 100,000,000엔은 장래 신규취농자

나 후계자에 대한 농업용 기계 시설대부사업을 행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특별회계로 관리

- 공사가 발족함과 동시에 정이 소유하고 있는 연수농장시설을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하였으며 교류시설은 2005년도 지정관리제도에 의해 전면 위탁함

○ 구마고젠농업공원 내에 구마고젠정영농지원센터를 2005년에 설립

- 농지의 이용조정, 농업후계자 확보, 지역농업진흥 및 기획제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구미고젠정의 거점영농조직으로 역할하기 위함
- 구미고젠정, (사)구마고젠농업공사, 마쓰야마시농업협동조합, 에히메현중여지방국산업진흥과·농촌정비제1과 등 4개 기관과 구마고젠정 농업위원회, 마쓰야마농업공제조합이 연계하여 조직을 구성
- 주로 농업후계자육성사업과 신규취농자에 대한 농지유통화 사업을 실시

○ 사무실 현황

- 상근 직원 5명이 근무. 3명은 정, 1명은 농협에서 파견 나왔으며 1명이 센터 직원임

□ 농업후계자 육성 및 신규취농자에 대한 농지유통화 사업

○ 농업 후계자 육성은 1998년부터 시작. 도시로 부터의 귀농자를 대상으로 2년 동안 농업실습기회를 제공

- 2년 간 연수 후 취농이기 때문에 주로 실습 위주로 운영
- 적을 때는 매년 1명 많을 때는 4명 등 평균적으로 매년 3명 정도 연수, 현재는 2명이 연수중이며 4월부터 1명이 더 추가되어 총 3명이 될 예정
- 농업공원에 있는 유리 온실을 연수생이 맡아서 관리하는 형태
- 토마토 재배가 기본이며, 꽃 재배, 시금치 등
- 구마고원정에 취농하는 것을 조건으로 구마고원정에서 연수비 월 12만 엔
- 15만엔 정도 지급. 이는 구마고원정에서 정부로부터의 교부금을 반아서 지급하는 것임
- 영농 자재비는 농업공원에서 부담
- 연수생들에게 기본적으로 부기연수를 실시. 연수생이 작성한 경영분석 부기장을 보고 컨설팅을 실시. 컨설팅은 농업기술보급센터에서 지도해

주고 있음.

- 구마고원농업지도반들이 나와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연수의 지속성 여부를 판단
 - 군(정), 농협, 지도반들이 협력하여 농지도 알선해주고 있음
 - 농지보유합리화사업에서 농유지 임대업무도 담당
 - 연수생들이 이곳에 정착한 수 5년 이내에 그만 두면 정에서 지원받은 돈을 반환
 - 연수생들은 구조 조정에서 명퇴한 사람들, 대학 졸업 후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으며 동경, 이바라끼, 아이치, 오사카 등 전국각지에서 오고 있음. 지금까지 5명만 지역사람이며 나머지는 외부사람들임
 - 농림수산성에서 신규 취농자 확보를 위한 전국후계자육성지원박람회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구마농업공원을 알선해 줌
 - 연구를 마친 신규 취농자들은 5,000평으로 영농을 시작
- 연수가 끝난 사람이 취농을 할 경우 농업공사에서 농지유동화사업 등을 활용하여 농지제공 및 취종지원사업을 실시
- 지금까지 23명의 농업연수생중 19명이 취농(그 중 기혼자는 6명)
 - 이들에게 지급된 농지는 813.7a에 이름
 - 신규 취농자에 대해서는 영농지원센터에서 5년 이내의 집중지도가 있으며, 전담어드바이서에 의한 정기순회, 지역별농가지도자의 설치, 신규취농자를 위한 정기연수회 간담회 등을 개최함
 - 또한 신규취농자 중에서 규모확대 희망자에게는 농지를 알선하거나 농지를 임대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도 상담함

□ 도농교류사업

- 구마고젠정의 고원지대이고 주변에 온천지대가 있기 때문에 외래 방문객이 많은 편임. 이를 활용하여 농업공원 내에 도농교류시설을 갖추고 도농교류사업을 실시
- 원래 이 지역 일대는 맛있는 사과산지로 주민가운데 관광 사과원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음. 이러한 관광기반을 더욱더 발전시킨 형태가

농업공원내의 도농교류시설임

- 메인 시설은 통나무가 딸린 클라인가르텐임. 클라인가르텐의 이용료는 10평당 25,000엔으로 비교적 저렴한 편임. 계약은 2년 단위인데 기존 이용객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음. 신규물량이 많지 않아서 경쟁률이 5대 1정도임
- 클라인가르텐과 별도로 농업공원에서 주최하는 딸기수확체험, 지역농산물 판매 등이 이루어짐. 특히 딸기체험이 2월 13일 개장할 예정인데 마쓰야마 시내 가족 단위로 방문객이 많은 편임
- 최근에는 주말(토일) 고속도로 1,000엔제도의 실시로 오오사카 등지에서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음(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네비게이션에 딸기체험을 검색하여 방문(가볍게)하는 사람도 많음). 연간 2,000명 정도가 체험활동을 위해 방문
- 연간 방문객이 2006년의 경우 33,000명 정도임. 특히 가을의 수확축제 내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함. 농산물 가운데 꽃, 토마토, 무 등이 잘 팔림(농사체험만으로 수입이 적기에 지역 농산물을 병행하여 판매)
- 딸기체험이나 가을 축제기간동안 35인 농가가 축제 열릴 때 농산물을 판매하여 수익의 10% 수수료를 내고 있음

□ 기타

○ 중산간지역 농업 형태에 관해서

- 산골짜기에는 소규모 다품목 농업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교류사업이 중요
-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며 1년 중 체험거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 예를 들어 구마고겐에서는 1년을 딸기-블루베리-포도-사과, 배 등을 연계하여 구마고겐에 방문하면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하게끔 PR하는 것이 목표임.

○ 농업 후계자 연수생의 생활에 관해서

- 직장에 들어가면 30만 엔 정도 연금을 지급받으나, 취농하게 되면 연금 차이가 상당하고 농업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음
- 농업자 연금은 1만5천/월, 국민연금은 6만5천/월로 총 8만 엔 정도를 지급받음. 여기에서 세금, 개호보험, 건강보험 등을 제하므로 생활이 어

려움. 부부가 14만 엔 정도 지급받는 정도임. 따라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각오가 있어야 가능. 다만 농촌에서 고령자들이 고령자를 돌보므로 생활비 측면에서 약간 도움이 됨.

- 연수생을 선발할 경우 이 점을 중요시하며 선발 때 실습체험을 실시
- 향후 외지인이 오기 위해서는 경관, (라벤더) 수경하여 아름답게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향후 회사 발전 방안으로 중요한 면이라 생각함

3. 타케노모리가든농장

○ 농장 운영 현황

- 구마고겐정의 구마농업공원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의 산록부에 위치
- 5가족이 운영하는 3.5헥타르 규모 농장(아버지, 어머니, 농장주 부부, 누나).
- 원래는 담배, 무, 등 밭작물을 재배하였으나 현재는 사과 포도 과수원으로 경영, 토지의 90%가 본인 소유임(산지 간의 경쟁으로 야채는 경쟁에서 약하기 때문에 과수로 돌리게 됨)
- 1970년 사과 체험 농원으로 시작. 사과는 오너(owner)제도로써 현재 60명의 회원이 분양을 받음. 나무 한 그루에 2만 엔으로 사과 40kg(120-150개) 정도를 보장. 고객의 80퍼센트가 마쓰야마 시에서, 20% 고지현에서 옴
- 이전에는 사과가 많았으나 점차 인기가 줄어들어 포도 쪽이 증가하는 추세임
- 포도 중 20%는 농가에서 수확하여 일반 유통 판매하고, 나머지 80% 체험활동으로 판매. 체험활동 중 30%가 회원제이며, 50%가 일반 손님에 대한 수확체험임. 회원제(owner)는 1구좌 2만 엔 정도이며 131kg을 보장 보통 1명당 2구좌(4만 엔)을 지급함. 주로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고 있음.
- 포도 수확은 8월, 9월, 10월, 11월 4개월 동안 이루어지는데 약 5천명이 방문. 성인은 1,000엔, 아이는 700엔을 내고 수확하여 감

○ 주요 역할 분담

- 어머니는 제조, 식품가공 담당, 아버지는 농장 정비 담당. 농장주 부부가 판매와 경영을 책임. 누나는 농가 홈페이지, 전단지, 게시판 등의 디자인 담당

○ 농장주 누나의 홈페이지 작성 및 운영 컨설팅

- 농장주 누나가 오사카에서 광고회사의 기자역할을 15년 동안 하였음. 우연한 기회에 고향 아버지 농장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것이 반응이 좋아, 여러 군데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 들어옴. 이를 계기로 고향으로 돌아와 농장 홈페이지 작성 및 운영 컨설팅 사업을 시작. 농가에서 필요한 실시간 정보를 발신하는 서비스도 제공
- 홋카이도, 동경, 히로시마, 고치, 미야자끼 등의 농가 커넥션을 통해서 전국에서 컨설팅을 받고 있는 농가가 있음.
- 특히 야마나시현과 나가노현에 있는 포도 농가들에게 입소문이 나서 고객이 증가함
- 처음에 사무소를 농장에 두었으나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마스야마시내로 사무실을 이전(일종의 SOHO)

○ 타케노모리가든농장 운영에 있어서 성공요인

- 첫째로는 농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맛있을 것, 포도의 경우 기온차, 표고, 토양으로 인해 맛이 매우 좋음(델라웨어, 피오즈, 등 4개 품종). 어머니가 만드는 곤약, 고구마말랭이, 사과잼도 맛이 좋은 편임.
- * 참고로 농장에서는 1차 가공품(곤약, 고구마말랭이, 사과잼)을 제조할 수 있음 2차 가공품(포도주스)을 만들기 위해서는 허가와 시설이 필요함
- 둘째, 방문객들이 휴게소, 찜질방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별장 수요로 인해 알선 담당)도 담당
- 다각적인 활동으로 손님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목표는 1천만 엔 수익을 올리는 것임(농산물생산+부동산+가공). 3.5ha 면적을 줄여서라도 목표치를 달성하려 함.
- 홍보의 중요성. 인터넷, 신문(지역경제신문), TV 취재(3개 방송국에서 1년 동안 취재하여 방송)등이 이루어 졌는데 이 중에서 TV가 효과가 가장 높음(TV>신문>인터넷 순임). 상세한 정보는 인터넷에 올려둠

○ 별장에 대하여

- 체험활동 이후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이 되고 그 이후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장을 만들려고 함.
- 현재 별장 4개를 손님이 건축. 관리를 농장에서 담당. 별장 관리 수입으로는 토지임대료로 연간 5만 엔/30평을 받음

4. 고치현(高知縣) 유스하라정(檮原町) 농가민숙 운영 사례

○ 일반 현황 및 배경

- 농가민숙 및 농가레스토랑을 함께 운영
- 그린투어리즘협회 농가민박 1호
- 농사 짓다가 타산이 맞지 않아서 농가민숙을 시작하게 됨.
- 500a 면적에 농사를 지어 농가민숙 방문객 및 농가레스토랑 식재료로 100% 활용

○ 농가민숙 운영

- 학생 교류 활동으로 시작하여 최근에는 가족 단위로 많이 방문
- 외국(페루, 배재대 교수 및 학생)에서도 방문
 - 인근 지역에 친환경산림지역으로 선포되면서 답사시 농가민숙 체류
- 방문 이유로는 ① 음식맛이 좋아서(지산지소), ② 지역민과 교류 가능(대화 가능), ③ 아름다운 경관 및 자연
- 체류객들은 인근 관광지 연계 방문하거나 농가에서 제공하는 체험활동(가재잡기, 곤약만들기 등)을 경험
- 주인 아주머니는 농가민숙 운영, 음식장만 및 농가레스토랑 운영을 담당, 남편은 식재료 공급,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곤약만들기 체험을 담당
- 연간 800명 방문, 1박 기준(조식 및 석식 포함)으로 1인당 6,500엔
- 2박 3일 체류할 경우 식사는 달리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음.

○ 농가레스토랑 운영

- 시간제 상시고용(파트타임) 2명
- 농가레스토랑 운영은 9시~2시까지만 운영

5. 고치현(高知縣) 우마지무라(馬路村) 농협

□ 우마지무라 농협의 사업 추진 배경

- 고치현의 우마지무라(馬路村)는 1,000m 전후의 산으로 둘러싸인 산촌마을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
 - 고치현 동부에 위치하여 총 면적의 95% 산지에 속한 지역이며, 1889년 2개의 촌이 합병하여 2008년 기준 인구는 1,069명임
 - 임업은 삼나무가 유명하여 건축목재와 공예품을 제조하며, 유자 생산이 많은 편임
 - 이 마을의 주요 산업인 임업이 쇠퇴함에 따라 임업+농업 형태의 겸업을 실시하여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음
- 전국적으로 겪고 있는 농협의 위기를 극복하고 매출액을 증대시키고 지역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
 - 이를 위해 30년 전부터 ① 고용을 창출하도록 가공사업, ② 가격 안정을 위해 수매사업을 추진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게 됨
 - 우선 가공사업에서 수익을 거두기 위해 설비 투자를 실시하고 수수료만 받도록 하였음
 - 중산간지역에 유자가 대량 생산되므로 가격 안정을 위해 위험성이 있음에도 수매사업을 실시함
 - 이 지역에 넓은 과수원이 없으므로 세 지역의 산지 간에 제휴하여 원료를 조달하여 고가(高價)로 수매하고 효율적으로 유자 가공품을 생산
 - 이러한 노력으로 20년 전부터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현재 매출액은 32억 엔, 농협 직원은 95명을 두고 있음
 -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간지역인 이 마을로 연간 6만 명이 방문하고 시찰단만 300명이 방문하고 있어 농협에서 산업 회생을 통한 마을 살리기에 성공했다고 봄
 - 현재에도 우미자무라 농협은 흑자를 올리고 있으나 더 이상 매출액이

증가하지 않고 있음

- 일본 전 지역에 유자를 판매하고 있으나, 다른 여러 산지에서도 유자가 많이 생산되고 민간기업의 유자 가공품과의 경쟁도 치열하여 여러 가지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통신판매망을 활용한 유자 가공품 브랜드화 성공

- 현재 일본 전 지역에서 유명한 “ごっくん馬路村” 유자 음료를 개발하여 지역 브랜드화에 성공
 - 1987년 경 유자 생산이 풍년을 거두어 가격이 하락됨에 따라 우마지무라 농협에서 가공을 하여 판로를 개척하고자 노력
 - 시행착오 끝에 달지 않고 맛있는 유자 음료를 개발하고 디자인에 공을 들여서 제작하여 홍보에 힘을 기울였음
 - 소비자들에게 ‘우마지(うまじ)’는 ‘맑은 물과 좋은 산골’로 일본의 원형이라는 상징으로 거듭나 제품 판매로 연결되어 지역적으로 이득 창출
- 유자가공공장에서 가공공장 설비실을 두어 기계화로 유자제품이 생산되며,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연구실, 디자인실, 판촉 및 배송을 위한 콜센터와 배송센터를 별도로 두고 있음
 - 유자를 활용하여 차, 음료, 화장품, 드링크 등 다양한 상품들을 생산·판매하고 있음. 최근에 한국에서 유자차가 인기 있는 편임
 - “ごっくん馬路村” 음료는 100% 유자과즙에 벌꿀과 물을 배합하여 기계화로 생산
 - 100% 유자과즙 1.8ℓ 기준으로 드링크 1,000병을 생산하여, 하루에 700만 병을 생산하되, 공장설비는 1주일에 2번 정도 가동하여 물량을 조절
 - 신제품 개발, 기술 및 품질 개량을 위해 3명의 연구원을 고용하여 연구개발을 담당하며 현재 유자씨를 활용한 화장품 개발에 힘쓰고 있음
 - 그동안 외주를 주어 화장품을 생산해 왔으나 현재 정부, 고치현, 우마지무라 농협에서 자금을 마련하여 화장품공장을 건설 중에 있음
 - 배송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택배 포장은 기계화 대신 인력을 활용하여 고용 창출을 꾀한 것이 특징적임
 - 배송센터에 15명이, 콜센터 20명의 지역민이 근무하여 지역 내 고용 창

출 효과를 얻음

- 22년 간 꾸준한 고객 관리를 통한 통신판매망을 형성
 - 현재 유통 구조는 일반 유통이 36%, 직판(택배)이 64% 차지
 - 일반유통에는 3개 유통의 도매상에서 구입하여 약 1,000 점포로 및 백화점으로 납품됨
 - 직판은 35만 명 소비되고 있는데 이는 20년 간 고객 명단을 만들고 주기적으로 카달로그를 발송하고 제품을 관리하여 재구매율이 높은 편임
 - 주문생산방식으로 과잉 생산에 따른 재고 위험을 줄였음

6. 고치현 이노정(いの町) 그린투어리즘 연구회(농촌관광 사무국)

□ 지역 개요

- 이노정(いの町)은 3개 시정촌이 합병된 마을로, 그 당시 인구가 2만 8천 명에 이룸
 - 고치현 중앙에 위치하며 산으로 둘러싸인 산간지역으로 니요도강이 흐름
 - 농림업과 제지업이 주요 산업으로 쌀, 과일, 생강, 시설원예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04년 10월 1일 아가와 군 이노정(伊野町)과 고히쿠촌(吾北村), 도사 군 혼가와촌(本川村)이 합병

<표> 이노정(いの町)의 인구, 세대수, 노인 비율(2005년)

	인구 (명)	세대수 (호)	노인 비율 (%)
伊野 지역	23,377	8,416	24.4
吾北 지역	3,002	1,245	44.6
本川 지역	689	344	43.7
합계	27,068	10,005	27.1

- 이노정(いの町)의 상동지구는 4개 취락으로 구성되어 중산간직접지불 협정을 체결
 - 집락호수 68호, 농가호수 35호이며 조직가입호수가 45호를 차지
 - 논 면적 15ha, 공원·화전면적 1.5ha, 기반정비율 11.7%를 차지

□ 그린투어리즘(GT) 연구회 설립

- 시정촌 합병시 주민의 힘으로 지역만들기를 위해 2003년 그린투어리즘(GT) 연구회 발족함
 - 여러 가지 협력 활동을 실시하나 농촌민박(2003년 7호→ 현재 5명)을 중심으로 체험활동 등을 실시함
 - 45명이 연구회 멤버이며, 농박 이외 40명이 참여
 - 주된 농촌관광 활동으로 소바만들기 체험, 화전 체험활동, 다랭이논 재홍 등을 실시함
- 농촌관광은 마을 운영과 개인 운영의 중간 형태로 농박 관련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
 - 경영자 입장에서 큰 소득을 올리는 것은 아니나 지역적인 면에서 교류활동으로써 의미 있음
 - 지역 내 체험활동 수요가 있으며, 다른 농박은 30-50명 정도인데 반해, 2008년에는 160명이 방문, 2009년에는 110명이 방문하였음
 - 농촌관광은 폐교가 중심적인 거점으로 활용됨

□ 상동(上東)지구의 「지역재생계획」 수립

- 상동(上東)지구의 10년 후 지역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
 - 2009년에 고치현과 이노정에서 보조를 받아 착수하여 ① 교류활동, ② 문화보전, ③ 농업을 통한 판매 달성을 목적으로 상동지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 교류활동 차원에서는 오사카에서 연주자들이 거주하기를 원하여 빈집을 개조하고 있음
- 동백나무 아래에서 개최한 이벤트는 올해 3월이 되면 14회째를 맞이하게 되며, 연간 약 500명 정도 방문. 방문객들이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고 농박에서 머물게 되어 지역 소득원을 창출하고, 마을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역할을 수행하게 됨
- 초기에는 지역주민만이 참여했으나 행정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음
- 문화보전 차원에서 제빵학교, 악기 제작 등의 활동과 5월과 8월 경에 화전으로 손님을 유치하는 행사를 실시
- 사카마이(酒米)라 불리는 양조미 재배지가 0.5ha 에서1.5ha로 증가하였으나 요즘에는 일본술 판매가 저조하여 현상 유지 수준임

○ 지역재생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학습과정을 거치며 적극적으로 활동

- 지역주민들(80명)이 1년 간 지역음식, 교류활동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いきいき 寺野」책자 작성하여 만들고 인쇄만 행정에서 지원받음
- 사진 제작은 행정에서 담당하고, 지역주민들이 자원 및 현황 조사 방법을 배워 가며 작성
- 쓰쿠바에 있는 농촌관광 공무원이 컨설팅 해주었고, 별 관측을 위해 방문객들이 무료로 사진을 찍어줌
- 여행잡지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농박에 대해 내용을 싣고 있음

○ 타지역 및 독일과 교류활동이 있으나 아직 적극적인 외국인의 유치는 저조한 편

- 고지대학에서 슬로시티 및 슬로푸드 관련 교수가 독일과 교류하여 상동 지구에 3번 방문을 하였으며, 연주회 등 교류활동을 실시
- 일본에서도 (작은 규모로) 슬로시티를 하고 있음을 독일인들이 느끼고 돌아간 계기를 마련
- 외국인들 숙박에 대한 문의가 있으나 아직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

□ 경작포기지 감소를 위한 노력

- 중산간직접지불제도로 인해 향후 10년 동안은 경작포기지가 감소하지 않고 현상 유지될 것으로 예측
 - 인구 구성이 주로 60-70대가 많으나 50대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활동들을 수행하므로 10년 후에도 계속 이루어질 것임
 - 특히 연금으로 노후 생활이 보장되므로 추가적인 요인(플러스 알파)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보편적임
 - 지역 활동으로 창출되는 소득원은 적어서 직업적으로는 어려워도 사람과의 교류를 즐기는 것으로 만족
 - 경작포기지에서 지역 재생 차원으로 콩을 재배하여 된장을 만들고, 유자원을 정비할 계획임
 - 지역 주민들이 집락 전체에서 논의 과정을 통하여 지역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실천하게끔 노력